

##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전체 노숙인 등 규모는 1만 2,725명 (2021년 대비 1,679명(11.6%) 감소) -
  - ‘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’는 비율 감소, 의료접근성 향상 확인 -
  - 주요 수입원은 ‘공공부조’, 가장 필요한 지원은 ‘소득보조’ -

- '24년 실태조사 결과,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며,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\* ('21→'24년) ▲ 규모 (1만 4,404명 → 1만 2,725명), ▲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 (74.5% → 75.7%), ▲ 시설 노숙인 중 노인 비율 (32.7% → 36.8%)
-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‘실직’(35.8%)이 가장 많았으며,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‘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’(36.8%)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.
-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75.3%로 '21년 75.7%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.8%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, 지출 비중은 식료품비(39.1%), 술담배(18.8%), 생활용품비(13.4%) 순으로 나타났다.
-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'21년보다 낮아졌으나, 몸이 아플 때 ‘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.’는 비율이 '21년 대비 감소하여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.
  - \* ('21→'24년) ▲ 주관적 건강 인지율 (44.4% → 40.3%) ▲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율 (9.6% → 6.5%)
-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'21년 대비 증가하였고, 가장 필요한 지원은 ‘소득보조’로 조사되었다.
  - \*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('21→'24년) ▲ 무료급식 (67.2% → 84.8%), ▲ 편의시설 이용 (63.1% → 74.2%), ▲ 법률 지원 서비스(주민등록 복원·신용회복 등) (13.2% → 41.8%)
  - \* 가장 필요한 지원 ▲ 소득보조 41.7%, ▲ 주거지원 20.8%, ▲ 의료지원 14.4%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「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하였다.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\*의 규모,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,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,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.

\* (노숙인 등) ①거리 노숙인(거리 노숙, 노숙인 이용시설(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) 이용자), ②시설 노숙인(자활·재활·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), ③쪽방주민(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·관리를 받는 주민)

[참고] 노숙인등 거처유형별 상세 설명은 【붙임 2】 용어 설명 참조

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. 이번 조사는 2016년,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.

#### <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>

◆ 조사기간/조사연구기관 : '24.5월 ~ 7월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◆ 조사방법 및 내용

- (1차) 일시집계조사('24.5.10, 00:00~05:00)

\* 거리노숙인, 시설 노숙인,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규모, 성별, 연령 등 조사

- (2차) 심층 면접조사('24.5.28~'24.6.19)

\* 1차 조사에서 집계된 거리노숙인, 시설노숙인,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,7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, 경제활동,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조사

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# 1)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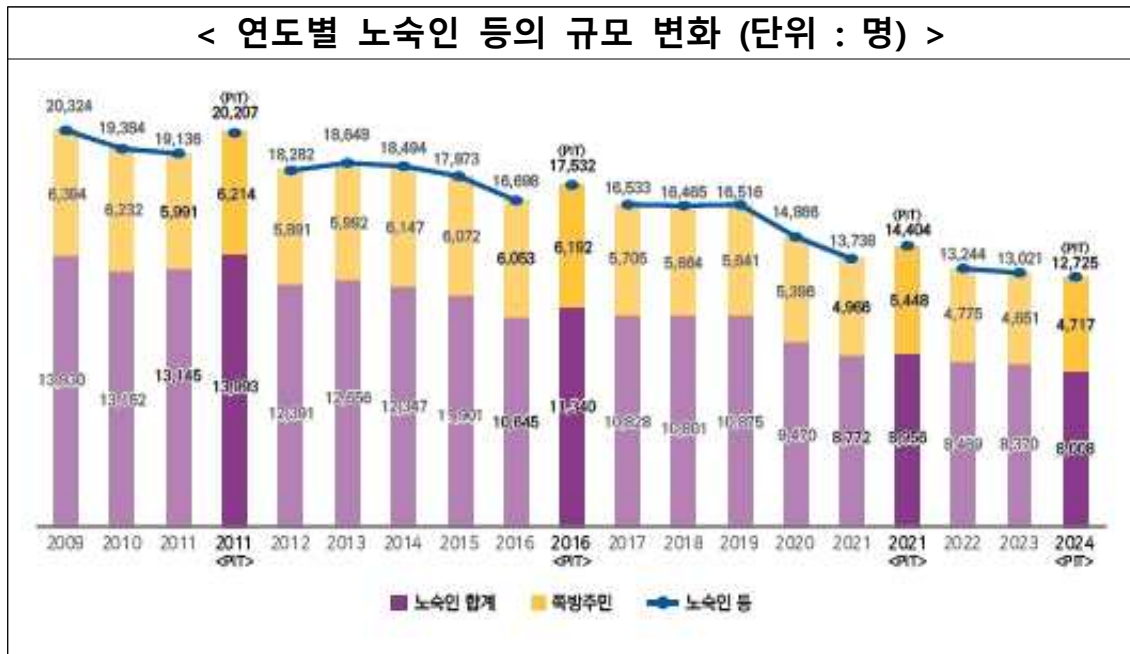
#### 1) 노숙인 등의 규모 (일시집계조사)

○ (규모) 2024년 전국 노숙인 등\* 수는 12,725명으로 2021년 대비 1,679명 (△11.6%) 감소하였다.

\* (노숙인 등) ①거리 노숙인(거리 노숙, 노숙인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 이용자), ②시설 노숙인(자활·재활·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), ③쪽방주민(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·관리를 받는 주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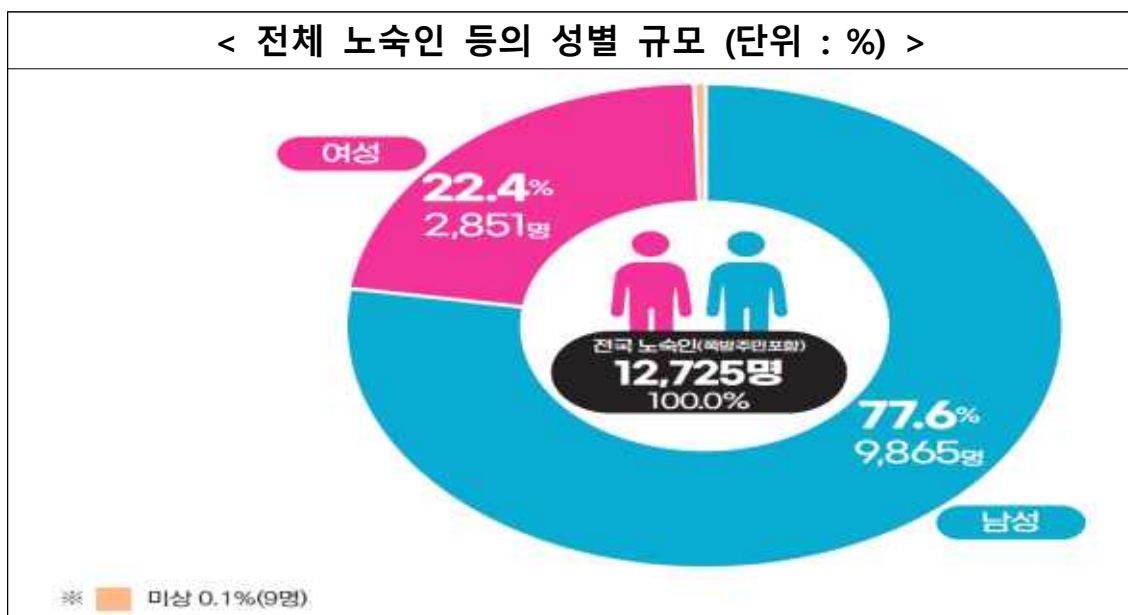
-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(거리 노숙, 노숙인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 이용자)은 1,349명(10.6%), 시설 노숙인(자활·재활·요양 시설의 입소 노숙인)은 6,659명(52.3%)\*, 쪽방주민은 4,717명(37.1%)으로 조사되었다.

\* (생활시설 노숙인 수) 자활 1,126명(8.8%), 재활 2,908명(22.9%), 요양 2,625명(20.6%)



## 2)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연령 (일시집계조사)

- (성별)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.6%(9,865명), 여성은 22.4%(2,851명)로 조사되었다.



○ (연령)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(37.1%)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50대(26.4%), 70대(15.8%), 40대(11.6%)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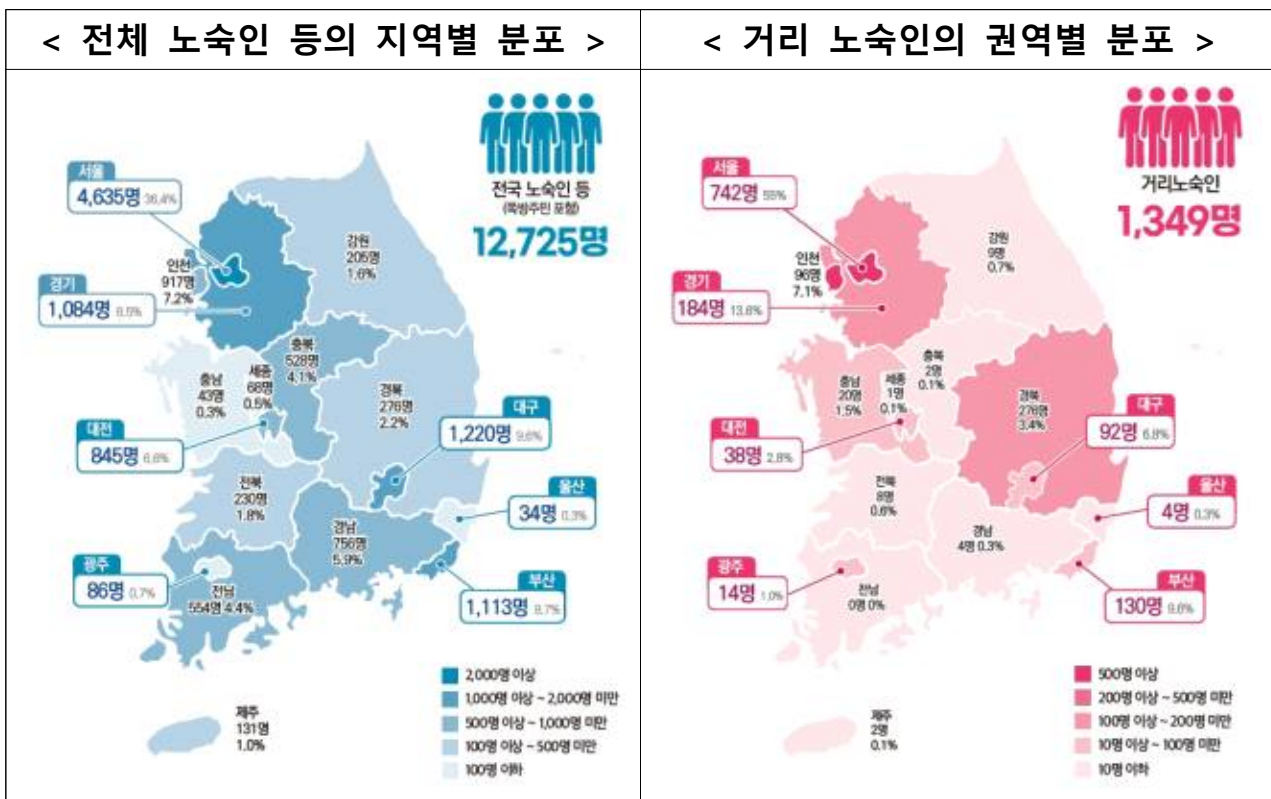
-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.8%로 '21년 32.7%에 비해 4.1%p 증가하였다.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.6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\* (노인노숙인 비율) 요양시설 46.6%, 재활시설 35.9%, 자활시설 16.5%

### 3) 노숙인 등의 지역별 분포 (일시집계조사)

○ (지역별 분포) 전체 노숙인 등의 52.1%(6,636명)가 수도권\*에서 생활 중이며, 특히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.7%(1,022명)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을 의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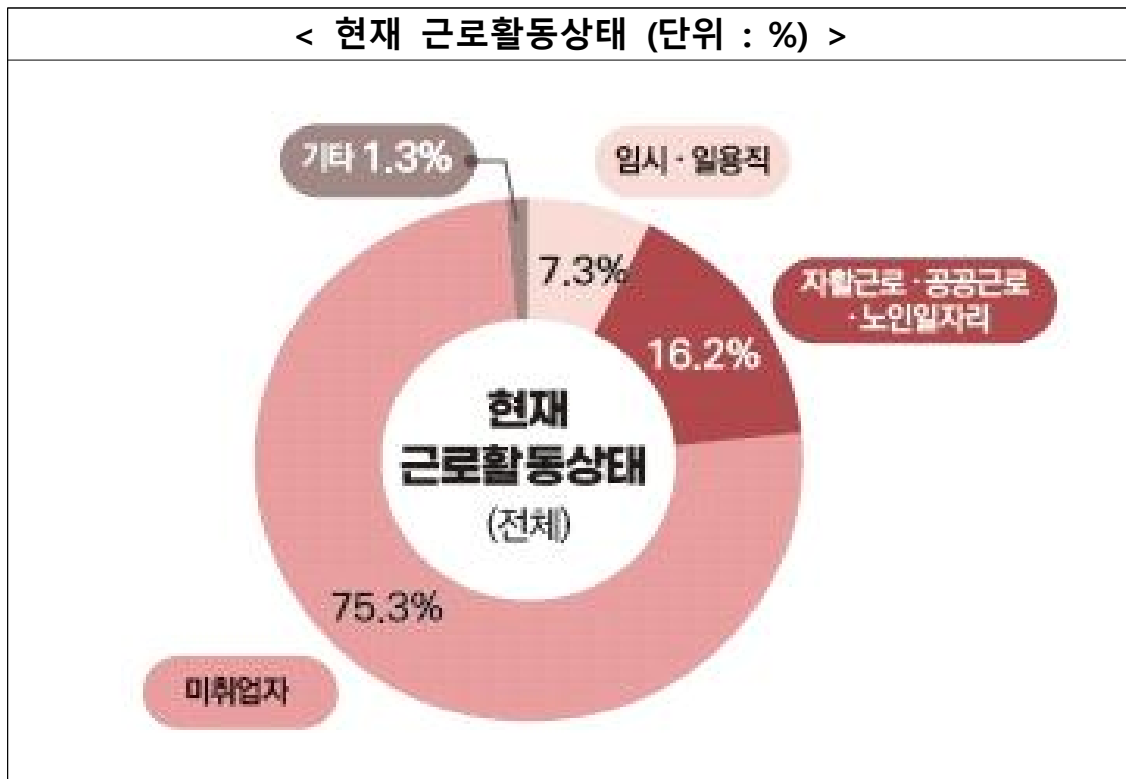
## 2 노숙인의 특성 및 욕구

### 1) 노숙과 주거 (표본 면접조사)

- (거리 노숙 계기) 거리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(35.8%)으로 나타났으며, 이혼 및 가족해체(12.6%), 사업 실패(11.2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  - 특히, 이혼 및 가족해체('21년 8.9% → '24년 12.6%), 질병 및 장애('21년 5.6% → '24년 8.3%), 주거지 상실('21년 5.8% → '24년 7.9%)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(노숙 이전 주거 형태)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(43.2%,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 등), 거리(24.1%, 현 거처와 다른 거리), 주택(15.3%) 등으로 조사되었다.
- (오늘 밤 잠자리)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이용자 제외)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·광장(36.9%), 지하 공간(28.9%) 순으로 조사되었으며, 거리·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.4개월로 나타났다.
  - 또한,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'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(22.7%)', '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(16.6%)'라는 응답이 많았다.
- (노숙 중 피해 경험)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은 노숙생활 중 구타·가혹 행위(4.0%), 금품갈취(3.2%), 명의도용·사기(2.9%)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.
- (시설 이용 않는 사유)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'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(36.8%)'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그 외에도 '실내공간이 답답해서(16.6%)', '시설을 잘 몰라서(14.2%)', '다른 입소자와의 갈등(11.5%)' 순으로 조사되었다.

## 2) 경제활동 (표본 면접조사)

- (근로활동)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.3%('21년 75.7%,  $\Delta 0.4\%p$ )로 '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미취업자 중 56.9%는 '근로능력이 없다'고 응답하였다.
- 전체 노숙인의 11.3%('21년 8.6%,  $+2.7\%p$ )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



- (소득)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\*에 의한 수입이 47.8%, 공공근로활동\*\*에 의한 수입이 37.6%를 차지하였다.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은 79.4만 원, 시설노숙인은 50.5만 원으로 나타났다.

\*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, 기초연금 등

\*\* 공동작업장, 자활사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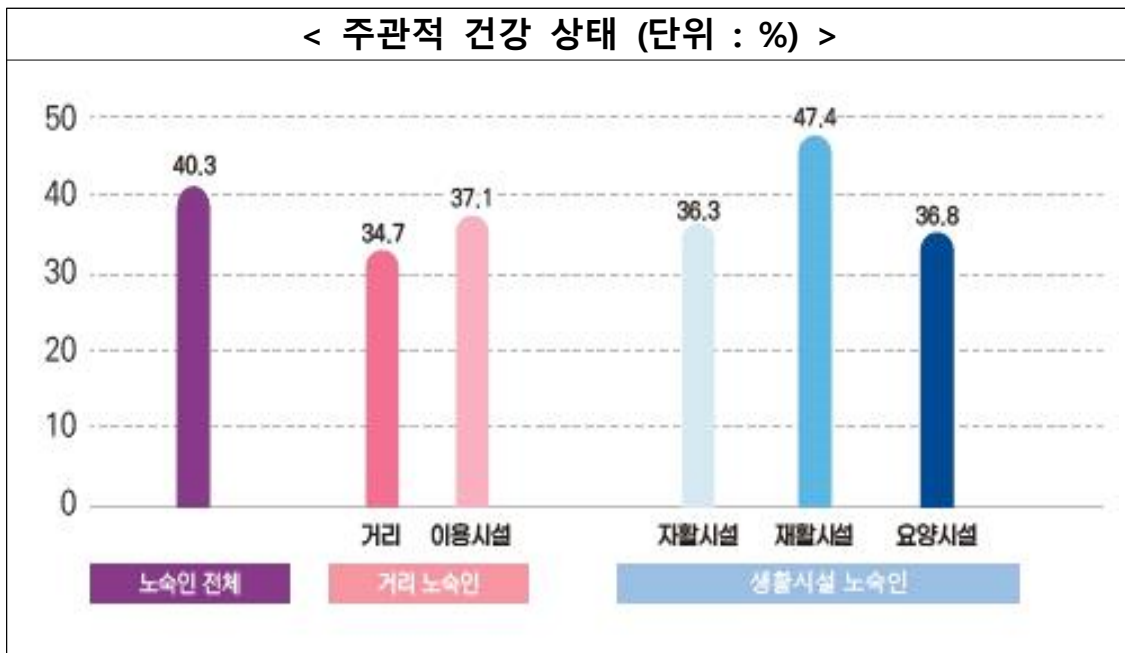
- (지출)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(39.1%), 술·담배(18.8%), 생활용품비(13.4%) 순으로 나타났다.

- (채무상태) 노숙인의 26.6%('21년 23.3%, +3.3%p)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노숙인의 71.3%('21년 67.1%, +4.2%p)는 금융채무 불이행자(신용불량자) 여부에 대해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다.

### 3) 건강 및 의료 (표본 면접조사)

- (주관적 건강 상태) 노숙인의 40.3%('21년 44.4%, △4.1%p)가 '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'고 응답하여 '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\*은 감소하였다.

\* 주관적 건강 수준을 '좋다' 또는 '매우 좋다'로 응답한 비율



- (알코올 의존성과 음주 실태)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\* 비율은 23.7%로 '21년 31.6%보다 7.9%p 감소하였다.

\*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(Cut down, Annoyed, Guilty, Eye-opener) 질문지를 활용하여, 2개 이상의 항목에 '그렇다'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

- 노숙인의 25.8%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. 이 중에서 44.7%는 월 1회 이하, 26.9%가 월 2~4회, 15.6%는 주 2~3회, 12.8%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(정신건강(우울)) 우울증 평가도구\*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,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.7%로 '21년 40.8%보다 12.1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-D(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-Depression Scale)의 축약형 버전(11문항)을 활용하여,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유력으로 고려

- (유병비율 및 치료경험)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(질환별 진단 받은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'예'라고 응답한 비율)은 주로 대사성질환(41.2%), 정신질환(25.8%), 치과질환(16.4%) 등이었다.

\* (대사성질환)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 등, (정신질환) 조현병, 우울증, 알코올중독 등, (치과질환) 치아질환, 잇몸질환, 치아결손 등

-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% 이상이지만, 거리 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은 치과질환 37.9%, 관절질환 54.9%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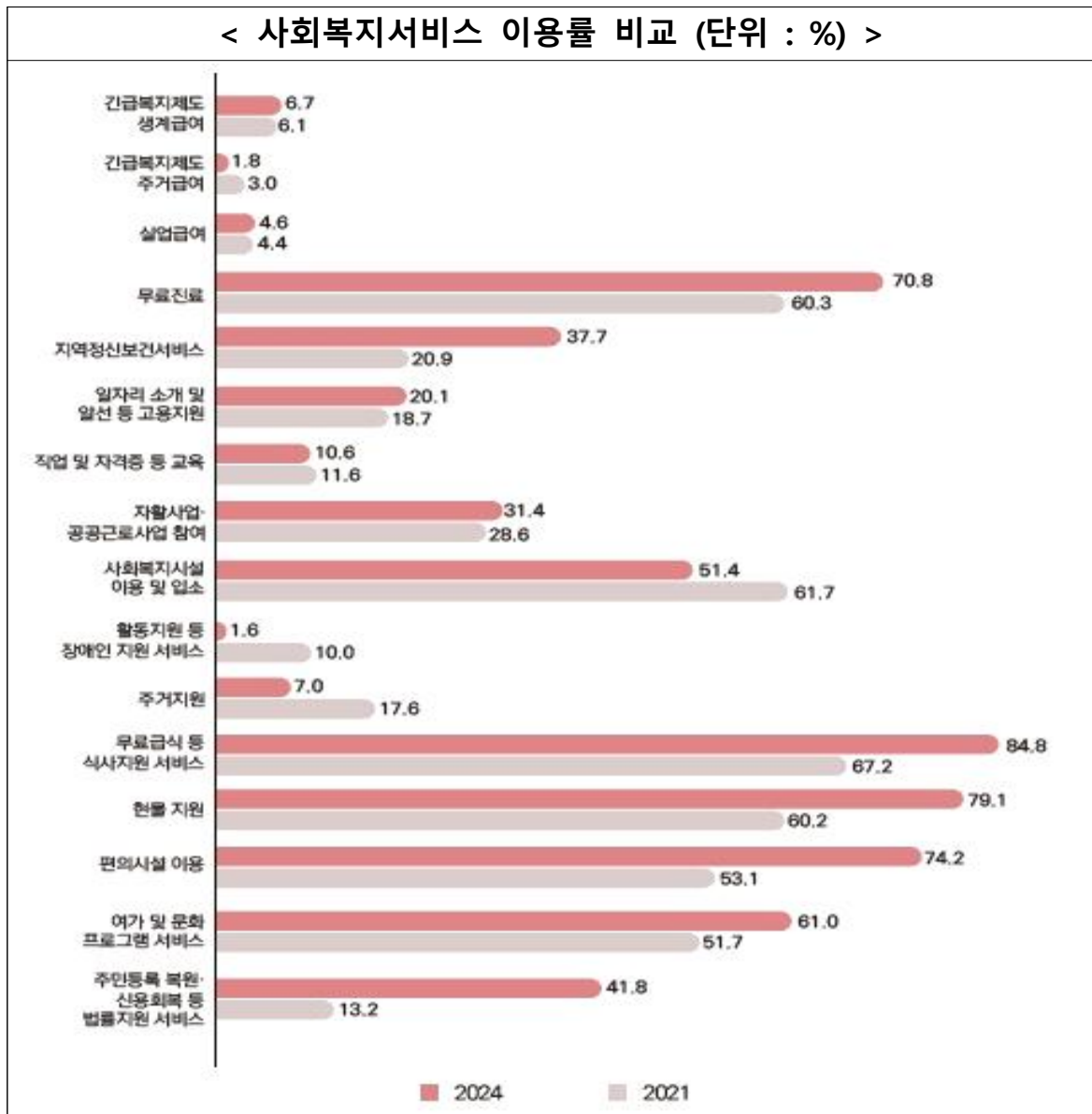
- (의료서비스 이용)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'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.'고 응답한 비율은 6.5%로 '21년 9.6%에 비해 3.1%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4) 사회복지서비스 (표본 면접조사)

- (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)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- 무료급식 84.8%('21년 67.2%, +17.6%p), 편의시설 이용 74.2%('21년 63.1%, +11.1%p), 법률 지원 서비스(주민등록 복원·신용회복 등) 41.8%('21년 13.2%, +28.6%p) 등 이용률이 '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였다.
- 반면, 주거지원 7.0%('21년 17.6%, △10.6%p), 장애인지원 서비스 1.6%('21년 10.0%, △8.4%p) 등은 '21년 대비 감소하였다.





○ (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)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(23.8%)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(16.6%),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(14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○ (가장 필요한 지원)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(41.7%), 주거지원(20.8%), 의료지원(14.4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### 3 쪽방주민의 특성 및 욕구 (일시집계조사 & 표본 면접조사)

- (지역별 분포)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·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, 서울 2,270명, 부산 859명, 대전 616명, 대구 593명,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(연령)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.8%(1,924명), 20~39세 청년은 2.2%(103명)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(근로활동 및 소득) 쪽방주민 중 63.4%('21년 71.6%, △8.2%p)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\*에 의한 수입이 60.8%, 공공근로활동\*\*에 의한 수입이 32.2%를 차지하였다. 또한,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.7만 원으로 나타났다.

\*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, 기초연금 등, \*\* 공동작업장, 자활사업 등

- (지출)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(62.5%), 식료품비(23.0%), 보건의료비(6.1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(알코올 의존성 및 정신건강(우울))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\* 비율은 42.2%로 '21년 28.9% 대비 13.3%p 증가하였고,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\*\* 비율은 71.3%로 '21년 61.0% 대비 10.3%p 증가하였다.

\*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(Cut down, Annoyed, Guilty, Eye-opener) 질문지를 활용하여, 2개 이상의 항목에 '그렇다'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

\*\*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-D(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-Depression Scale)의 축약형 버전(11문항)을 활용하여,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유력으로 고려

- (의료서비스 이용) 쪽방 주민의 4.1%('21년 9.1%, △5.0%p)는 몸이 아플 때 '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'라고 응답하였다.
- (가장 필요한 지원) 쪽방주민은 소득보조(55.7%), 주거지원(14.7%), 의료 지원(11.7%)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, 경제활동 현황, 복지서비스 욕구,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3차('26-'30)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('26-'30)을 수립할 예정이다.

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,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라며 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
 2. 용어의 설명  
 3. 주요지표의 변화  
 4. 질의응답

담당 부서	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환 (044-202-307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은 (044-202-3074)
	한국보건사회연구원	책임자	책임연구원	임덕영 (044-287-8284)

## 붙임 1

#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

- (조사명) 「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」
- (법적근거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동 법 시행규칙 제3조
  - \*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노숙인 등 실태조사 실시 의무
- (조사기간/조사기관) '24. 5월 ~ 6월/한국보건사회연구원
- (조사대상) 표본 수 총 1,700명\*
  - \* (인원) 거리 322(이용시설 포함), 시설 1,130 쪽방주민 250
- (조사내용) 노숙인 등의 현황\*,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, 근로활동 및 경제적 여건,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이용 등
  - \* (현황) 지역별 노숙인 규모, 성별, 나이, 거주지, 거주 형태 등

### <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>

조사구분	목적 및 내용		대상
(1차) 일시 집계 조사	조사내용	규모파악 및 일반적 특성 - 조사지역, 시설명, 노숙인 등의 수, 성별, 연령대, 가족 단위 노숙여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거리노숙인) 조사 당일 조사 거점에서 숙박하는 거리노숙인 * (선정경과)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해 거리노숙인 발견 거점 취합 (총 1,767거점)</li> <li>• (시설입소자) 조사 당일 노숙인 이용생활시설에서 숙박한 노숙인</li> <li>• (쪽방거주민) 조사 당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한 쪽방주민</li> </ul>
	조사일시	'24.5.10.(금) 00:00~05:00	
	조사방법	CAPI*(거리, 일부지역 종이조사) 및 웹(시설·쪽방) *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: 종이설문을 컴퓨터로 대체수행하는 조사	
(2차) 면접 조사	조사내용	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- 경제활동, 건강 및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서비스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시집계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등 중 표본으로 추출된 1,700명</li> <li>- 거리 322명(322명 조사완료, 이용시설 포함)</li> <li>- 시설 1,130명(1,130명 조사완료)</li> <li>- 쪽방주민 250명(250명 조사완료)</li> </ul>
	조사기간	'24.5.28(화) ~ '24.6.19.(수)	
	조사방법	CAPI(일부지역 종이조사)	

## 붙임 2

## 용어의 설명

구분			거처유형	사업내용 및 기준	시설수 및 인원	
					시설수 (24년)	노숙인수 (24년)
노숙인 등	노숙인	거리노숙인	거리노숙	· <b>(법적 정의)</b>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· <b>(일시조사 집계대상)</b> 자봉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	-	938명
			이용시설	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, 의료, 고용지원을 위한 <b>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, 응급조치,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, 심리상담 이외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 사업 등</b>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	13	411명
				노숙인 등에 대한 <b>일시적인 잠자리 제공, 급식 제공,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</b> 을 수행하면서 종합지원 센터에 상담 의뢰, 병원 진료 연계, 생활물자지원·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	8	
	노숙인	시설노숙인	노숙인 자활시설	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<b>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</b> 등을 입소시켜 <b>생활지도·상담·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·훈련</b>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<b>연계</b> 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·자립을 지원	45	1,126명
			노숙인 재활시설	<b>신체장애, 정신장애, 그 밖에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</b> 등을 입소시켜 <b>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</b> 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·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	33	2,908명
			노숙인 요양시설	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<b>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</b> 등을 입소시켜 <b>상담·치료 또는 요양서비스</b> 를 제공	22	2,625명
	쪽방주민	쪽방	쪽방	쪽방상담소는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, 취업지원, 생계지원,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· <b>(쪽방주민 수)</b> 쪽방상담소가 각종 복지서비스를 상담 및 관리 중인 주민 수	10	4,717명

\* 위 자료는 2024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정책자료로서 통계청 승인통계는 국가통계포털 【KOSIS】 <http://kosis.kr>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.

### 붙임 3

### 주요지표의 변화

구분		주요지표		2021년	2024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체 규모		노숙인 등의 규모		14,404명	12,725명 △1,679명	(‘24) 남 77.6%(9,865명), 여 22.4%(2,851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숙인	노숙원인	거리 노숙의 계기	실직	42.4%	35.8%	(‘24) 질병 및 장애 8.3% 주거지 상실 7.9%  * 거리노숙인(이용시설 포함) 통계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사업실패	17.5%	11.2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이혼 및 가족해체	8.9%	12.6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경제 활동	미취업자 비율		75.7%  * 근로능력 無 52.3% 有 23.4%	75.3% (△0.4%p)  * 근로능력 無 56.9% 有 18.4%	<table><tr><th colspan="2">%</th><th>‘21년</th><th>‘24년</th><th>증감 (%p)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거리 이용 시설</td><td>거리</td><td>88.2</td><td>89.0</td><td>+0.8</td></tr><tr><td></td><td>33.5</td><td>41.0</td><td>+7.5</td></tr><tr><td>자활</td><td>41.2</td><td>50.8</td><td>+9.6</td></tr><tr><td>재활</td><td>78.8</td><td>74.9</td><td>△3.9</td></tr><tr><td>요양</td><td>85.2</td><td>86.6</td><td>+1.4</td></tr></table>	%		‘21년	‘24년	증감 (%p)	거리 이용 시설	거리	88.2	89.0	+0.8		33.5	41.0	+7.5	자활	41.2	50.8	+9.6	재활	78.8	74.9	△3.9	요양	85.2	86.6	+1.4
		%		‘21년	‘24년	증감 (%p)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거리 이용 시설	거리	88.2	89.0	+0.8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33.5	41.0	+7.5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자활	41.2	50.8	+9.6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재활	78.8	74.9	△3.9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요양	85.2	86.6	+1.4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최근 4주 내 구직활동 경험		8.6%	11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 수입원	공공부조	56.3%	47.8%	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, 기초연금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공공근로활동	31.5%	37.6%	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지출 비중	식료품비	40.8%	39.1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술·담배	21.1%	18.8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용품비		13.0%	13.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강 의 료	몸이 아플 때	병원에 안 감	9.6%	6.5%	△3.1%p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시설 등 도움요청	38.6%	42.3%	+3.7%p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문제성 음주		31.6%	23.7%	△7.9%p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우울 유력		40.8%	28.7%	△12.1%p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관적 건강 상태		44.4%	40.3%	△4.1%p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거 복 지 서 비 스	가장 필요한 지원	소득보조	41.9%	41.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거지원	17.9%	20.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의료지원	14.6%	14.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률	무료급식	67.2%	84.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편의시설 이용	53.1%	74.2%	샤워시설, 세탁기 이용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법률지원서비스	13.2%	41.8%	주민등록 복원·신용회복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전체규모 : 거리노숙인, 시설노숙인, 쪽방주민 통계, 노숙인: 거리노숙인, 시설노숙인 통계  
 ※ 위 자료는 '21년도 및 '24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정책자료로서  
 통계청 승인통계는 국가통계포털 【KOSIS】 <http://kosis.kr>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.

## 1. 2021년 이후 3년 만에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유는?

- 노숙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필요시 수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
\* (제1차) '16년, (제2차) '21년

- 실태조사\*를 토대로 노숙인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3차('26-'30년)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'24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\* '24년 실태조사, '25년 실태조사 결과발표, '26년 제3차('26-'30년) 종합계획 시행

## 2. 2021년도 대비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달라진 점은?

- 노숙인 규모 등의 변화 추이, 이전 실태조사와의 비교 연구 등을 위해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은 2021년도 실태조사를 대부분 준용합니다.
- 다만, 2024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은 삭제하였으며, 건강 및 의료 영역에서는 일반 국민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
- 그리고 노숙인(거리 및 시설 노숙인)과 쪽방 주민은 거처 형태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가 큼니다. 따라서 2024년도 실태조사 보고서는 노숙인(거리 및 시설 노숙인)과 쪽방 주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.



### 3. 노숙인 등의 일시집계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?

- 거리노숙인, 시설노숙인,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동일 집계시간 ('24.5.10 00:00~05:00)에 특정 집계장소에서 실제 머무르고 있는 인원수를 조사(집계조사원 : 2인 1팀)하여 집계합니다.
- 거리노숙인의 경우 매년 광역자치단체 통해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거점을 취합하여 1,767개소의 조사거점을 선정하였고, 그 중 321개소에서 거리노숙인이 1명 이상 발견되었습니다.

### 4.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로 공표되는 통계 현황 및 공표 시점은?

- 통계청은 「통계법」 제18조,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받은 통계만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통계청 승인 통계는 이번 보도자료 배포 후 한 달 이내에 국가통계포털 【KOSIS】 <http://kosis.kr>를 통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.

## 5. 2021년도 조사결과 대비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는?

-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개선된 지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, 우울증 유력 및 문제성 음주 비율,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다만,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졌으며, 미취업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【붙임 3】 주요지표의 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노숙인 등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?

- 노숙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와 노숙인 복지현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노숙인 수 감소와 관련하여 그 배경과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.

## 7. 표본설계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2024년도 실태조사 표본은 대상별 신뢰수준, 모비율 추정 오차, 표본 크기 등을 감안하여 추출하였습니다.
- 또한, 2024년도 실태조사 표본 수는 2021년 실태조사 표본수와 동일한 수로 추출하였습니다.

<표본 추출 수>

연도	거리노숙인 (이용시설 포함)	시설노숙인	쪽방주민
2021년	320명	1,130명	250명
2024년	320명	1,130명	250명

- 이는 노숙인 등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사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